대파 · 양파 · 배추…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세

이달부터 공급부족 문제 완화 물가 안정세 '속도' 전망

농식품부, 민생부담 완화 품목별 수급대책 지속 추진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작년 냉해 · 태풍, 올해 한파 등에 따른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봄대파, 조생 양파, 봄배추 등의 봄작형 출하량이 시세를 주도하는 5월부터 그간의 공급 부족 문제가 완화되면서 농축산물 물가 안정세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상승 압력이 있는 농산물의 작황 · 가격 등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계란 수입 확대, 쌀 · 배추 비축물량 방출, 농축산물 소비쿠폰 할인(20~30%)행사 등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품목별 수급대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계란 가격은 수입물량 공급 및 지속적인 산란계 입식에 따른 사육마릿수 회복 등으로 상승세가 한 풀 꺾이면서 완만한 하락세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다. 특히, 4대 대형마트 계란 판매가격은 4월 말 기준 6,871원(특란 30개 기준) 수준이며, 소비쿠폰 할인 적용 시 실제 소비자 지불 가격은 약 5,000원대 중반 수준으로 소비자의 계란 체감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입물량의 경우 신선란(8,790만개), 가공용(5,117만개) 등 총 1억 3,907만개를 시중에 공급했으며, 정부는 수입 계란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국내산 계란 할인쿠폰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쌀은 전년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351만톤, 전년비 6.4%↓)로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1~4월 21만톤 공급)을 시장에 방출하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은 1월 이후 6만원/20kg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정부 비축물량 공급으로 부족상황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1월 상순 한파 · 강설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전년 공급과잉 기저효과가 중첩되며 가격 급등했던 대파는 봄대파 조기 출하와 출하지가 확대(전남 → 전북, 충청, 경기 등) 되면서 4월 중순 이후 뚜렷한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월 들어 적정한 강수량이 수반되면서 기온도 상승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봄대파는 재배면적이 전년과 비슷하고, 작황도 평년작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5월은 2,000원대, 6월은 평년(1,370원/kg)수준까지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장마, 태풍 등으로 생산량 감소한 사과 · 배의 가격 강세는 올해 햇과일 수확(8월)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고기의 경우, 4월 도축마릿수가 최근 5년간 4월 도축마릿수 중 가장 높은 수준고 평년의 경우 4~8월 동안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가정소비가 꾸준한 가운데 계절요인(5월 가정의 달)으로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가격(평년비 16.9%↑)이 유지되고 있다.

돼지고기는 공급량 증가(1~4월 도축 평년비 6.7%↑)에도 학교급식, 가정소비 등 수요 증가로 가격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등락 중이다. 통상 4~9월까지는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며, 수요 감소를 동반하는 외부 충격이 없는 한 가격은 현 수준에서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산 조생양파가 출하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세(4월 평년비 12.4%↓)를 보이는 양파는 5월까지 평년보다 10% 내외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년보다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는 중만생종이 출하되는 6~7월은 가격 상승 압력이 예상됨에 따라 조생양파 출하를 중만생종 출하 초기로 연기(5월→6월)하는 등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월 한파 피해로 평년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배추 가격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4월 1,110톤), 봄배추 출하 등으로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며,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5월 이후 평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변동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으므로 봄배추작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곧이어 다가오는 고랭지 작형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봄배추 수매비축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NH농협은행, 창립 60주년 가족사랑 · 고객감사 적금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가정의 달과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가족사랑과 고객감사의 의미를 담은 'NH사랑해요 · 감사해요 적금'을 출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NH사랑해요 · 감사해요 적금은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5월 한 달간 2만좌 한도로 판매하는 특판상품이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서 월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가입금액은 초입금 5만원 이상, 매회 1만원 이상, 매월 2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지정한 (조)부모 또는 (손)자녀 중 1인의 농협은행 입출식 계좌로 만기해지금액 자동 입금(1.5%p) ▲농협은행 청약상품 보유(0.7%p) ▲입출식 계좌에 잔월 급여 또는 연금 50만원 이상 이체(0.7%p)로 최고 연 2.9%p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 가입 고객 중 55명을 추첨해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위한 100만원 이내의 선물(5명) 및 한삼인 홍삼정을 제공(50명)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동시에, 당첨고객 중 희망하는 분들에 한하여 (손)자녀를 위한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등재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추후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모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농협은행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과 감동 있는 스토리를 함께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수산식품기업 판로 늘린다

aT김춘진 사장, 부안 등 찾아 라이브커머스 판로 확대 협의

전주 두메산골 영농조합법인 찾아 사회적기업 역할 당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이 농수산식품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aT 김춘진 사장은 지난 3일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고창군(군수 유기상)을 찾아 지역 농수산물 대상 라이브방송 등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판로 확대에 대해 협의하고, 부안 소재 대국수산(대표 김병구)을 방문해 키조개 등 수산물의 판로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4일에는 전주 소재 두메산골 영농조합법인(대표 유현주)을 방문해 가금류의 가공 처리 과정을 살펴본 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aT 김춘진 사장은 지난 3일 부안군을 찾아 지역 농수산물 대상 라이브방송 등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판로 확대에 대해 협의했다.

상추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 농촌진흥청은 지난 4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상추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이번 평가회는 상추 육종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농수산물 판로 개척엔 '라이브커머스'

aT, 3월부터 두달동안 라이브방송으로 4억3000만원 판매실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총 5회 라이브방송을 진행해 누적 시청자 49만3천명, 판매 실적 4억3천만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농수산물 온라인 판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는 aT 농식품거래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산 농수산물과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오픈마켓인 11번가의 'LIVE11 生쑈' 및 인터파크의 인터파크TV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협업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4월 초 진행한 '미나리와 명이나물' 행사에 13만3천명의 동시간대 접속자가 몰렸으며 1억4천9백만 원의 매출성과를 거뒀다. 제주도?제주농협과 협업한 '귤로장생 카라향',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토마토 등 다양한 상품들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할쿠폰(20%할인) 등을 지원했다.

aT 농식품거래소 윤영배 본부장은 "5월에도 우수한 제철 농수산물 및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품목들을 11번가 라이브방송을 통해 총 4회이상 진행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배송받고, 생산자들은 판로 확대 기회를 넓혀 나감으로써 '온택트' 시대에 맞는 新유통모델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 중대형 상용차 위기 극복 '맞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중대형 상용차 판매 확대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는 공장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트럭 판매 확대를 위해 건설 부문과 화물운송 부문 노조 간부들을 초청하는 특별 간담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문정훈 전주공장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 생산, 판매, 서비스 등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또 노조 측은 주인구 전주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건설노조, 화물연대 간부들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전주공장은 대형트럭 엑시언트와 수소전기트럭 등 생산제품 전시회를 열고 높아진 품질경쟁력과 친환경 기술경쟁력을 선보였다. 특히 수소전기 트럭 등 기술력을 갖춘 친환경 상용차의 관심을 주문했다. /뉴시스

전북형 디지털 강소농 육성 '박차'

전북농기원, 최고과정 교육 오리엔테이션 실시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강소농 농업경영 개선, 라이브커머스 등 소셜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강소농 최고과정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4일 농업기술원에서 코로나19 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했다.

디지털 강소농 최고과정 교육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선도 강소농 20명 내외 교육생을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추진을 한다.

디지털 강소농 최고과정의 목표는 정보통신 기술 및 스마트 농업기술 발달로, 농업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며, 스마트 농업 생산 페러다임과 소비자 친화형 농산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작고 강한 농업 실현하는 농업인 양성으로 역량강화 및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리엔테이션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 강소농 최고과정 운영계획 공유 및 교육생 1분 스피치를 통한 본인 소개, 최고 강소농의 품격, 경영개선 실천사례 공유, 향후 교육과정 진행방향을 협의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집단 상담과 커뮤티케이션 소통 활성화, 비즈니스 모델을 농작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품켄셉 및 컨텐츠 제작 기술, VMD(비주얼머천다이징) 전략 등 실습을 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강소농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 중 현장컨설팅을 분야별로 세심하게 진행해, 경영비 절감, 유통 마케팅 전략 차별화로 비대면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상품기획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임용환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농업의 디지털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전북형 디지털 강소농 육성으로 도시민들에게 안전 먹거리 생산과 유튜브 및 라이브커머스 등 다각적인 유통?판매 체계의 개선을 모색해 강소농가들의 소득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향상 기여에 심혈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전달책 검거 '결정적 역할'

전북은행 김영웅 과장, 익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 받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 인화동지점에 근무중인 김영웅 과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자금의 현금인출 예방 및 전달책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익산경찰서로부터 지난 4일 감사장을 받았다.

김영웅 과장은 지난 4월 22일 12시 30분경,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요청을 받았다며 현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상환을 문의하는 고객에게, 은행은 보통 현금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는 점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자세한 정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고객을 안심시켜 나갔다.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던 찰나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부터 장소를 변경하자는 문자가 왔다는 말을 전해들은 김 과장은 침착하게 고객을 통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고객의 사업장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한편 익산 평화지구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는 즉시 경찰인력을 급파했다.

평소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투철했던 김영웅 과장은 신고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청취하고,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는 전달책의 택시 번호판 사진을 찍게하여 문자로 받은 뒤 경찰에게 바로 택시 사진 및 차량번호를 전달,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이 택시를 추적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현행범으로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은행 관계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하림, 가정의 달 맞아 온라인 할인 프로모션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5월 가정을 달을 맞아 공식 쇼핑몰 '하림&닭'에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하림을 대표하는 인기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먼저 어린이날을 맞아 8일까지 아이들 간식이나 밥 반찬, 어른들 술 안주로도 안성맞춤인 신선제품 5종을 6,500원씩에 판매한다. ▲손수 만든 안심 튀김(370g) 2봉 ▲갈릭 훈제치킨 두조각(210g) 3봉 ▲자연실록 옛날통닭 통다리(155g) 2봉 ▲자연실록 옛날통닭(500g) 1봉 ▲전통 안동식 순살찜닭(300g) 2봉을 최대 58.9%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즈음해 5일부터 16일까지 보양식 선물세트도 할인 판매한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닭고기 2마리에 5년근 산양삼 4뿌리와 건인삼, 황기, 당귀 등 몸에 좋은 부재료를 함께 구성한 '산양삼 삼계탕 세트(950g)'를 4만9,900원에 판매하고, 2만8,000원 상당의 큐브 닭가슴살 선물세트를 무료로 증정한다.

이밖에도 '동물복지 IFF 큐브 닭가슴살'과 '한판 닭발/근위', '닭뚱집 튀김'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일정이 5월말까지 이어진다. 프로모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하림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하림&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